

## 외국인 근로자 환자의 성형외과 영역에 대한 분석

백인수 · 노상훈 · 흥인표 · 박철규

국립중앙의료원 성형외과

### Analysis of the Foreign Worker Patients in Plastic Surgery

In Soo Baek, M.D., Sang Hoon Roh, M.D.,  
In Pyo Hong, M.D., Chul Gyoo Park,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According to the data presented by ministry of justice, a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s approximately 700 thousands and among them 22 thousands are illegal workers. We would like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he foreign workers by analyzing clinical contents.

**Methods:** 1456 patients who visited the hospital were reviewed by nationality, medical department, gender and age. 62 patients have visited plastic surgery department and they were additionally reviewed by diagnosis, chief complaint and operation.

**Results:** Mongolians were 388 cases (26.7%), followed by Chinese with 452 cases (31.1%). General surgery had 264 visits (18.1%) followed by internal medicine with 388 visits (26.6%). In gender grouping, 781 patients were males and 675 patients were females. Hand, face and extremity injuries were common in plastic surgery field but many foreign worker patients also wanted to take aesthetic surgery such as scar revision, blepharoplasty and augmentation rhinoplasty.

**Conclusion:** It has been twenty years since foreign workers have come to the Korean society. In the past foreign workers were mostly neglected. However with the vast improvement in labor and welfare related services, demands for plastic surgery, especially aesthetic surgery are increasing among foreign workers. Therefore plastic surgeons' continuous interest in foreign workers is required.

**Key Words:** Foreign workers, Plastic surgery, Clinical contents

Received May 2, 2010  
Revised June 15, 2010  
Accepted July 12, 2010

**Address Correspondence:** In Pyo Hong,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National Medical Center,  
18-79 Eulchiro 6ga, Jung-gu, Seoul 100-799, Korea. Tel: 02)  
2260-7207/Fax: 02) 2263-8531/E-mail: nmcps@unitel.co.kr

### I. 서 론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하게 유입된 배경은 1980년대부터 경제 발전과 더불어 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위험률이 높고, 작업환경이 불결하며, 일이 힘든 이른바 3D (dirty, dangerous, difficult)업종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발생하였다.<sup>1</sup>

한국 정부는 1991년 11월부터 국내 노동인력이 기피하는 곳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만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주근로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sup>2</sup>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산업연수원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사업장을 이탈한 후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광비자로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 최근 통계청과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 한국에 약 70만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중 22만명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조사되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sup>3</sup>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 5월부터 복권기금을 통하여 국내의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 및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본원 및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기타 인증 의료기관 17곳에서 시행하고 있다.<sup>4</sup> 저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본원에 내원한 외국인 근로자 환자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성형외과 영역의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재료 및 방법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기타

사업장 근로확인서 또는 본인진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본원 고객센터팀이 대상자를 심사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비급여로 진료를 하게 된다.

국내 대부분의 병원들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본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혜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 환자들이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환자 1,456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진료과목, 국적, 상병, 성별, 연령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62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단명, 주증상, 입원 및 수술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타과 입원 도중 성형외과로 의뢰되어 수술을 시행한 경우도 진료내역에 포함하였다.

### III. 결 과

총 1,45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의 성별은 남자 781명 (53.6%) 여자 675 (46.4%)명이었다. 환자의 나이는 0 (신생아)~67세로 평균연령은 34.6세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52명 (31.1%, 한국계 중국인 포함)로 가장 많았고, 몽골 388명 (26.7%), 필리핀 182명 (12.5%), 베트남 138명 (9.5%), 네팔 118명 (8.1%), 태국 68명 (4.7%), 방글라데시 50명 (3.4%) 순이었다 (Table I). 진료과별로는 내과 진료 환자수가 전체 1,456명 중 388명 (26.6%)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264명 (18.1%), 이비인후과 138명 (9.5%), 정형외과 114명 (7.8%), 산부인과 106명 (7.3%), 비뇨기과 96명 (6.6%), 신경외과 78명 (5.4%), 성형외과 62명 (4.2%), 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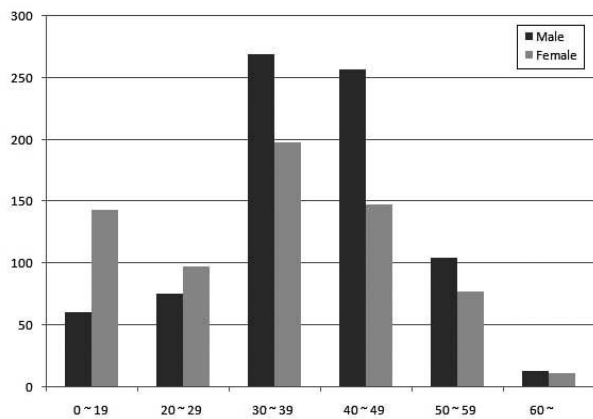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 patients by gender and age.

외과 40명(2.7%), 신경과 36명 (2.5%) 순이었다 (Table II).

전체 환자 중 4.2%를 차지한 성형외과 영역에 있어서는 외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수부손상이 가장 많았고 (32.2%) 안면부 손상 (25.8%), 상하지의 연부조직 결손 (9.7%)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도

Table I.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 Patients by Department

| Rank  | Department                | No. of patient (%) |
|-------|---------------------------|--------------------|
| 1     | Internal Medicine         | 388 (26.6%)        |
| 2     | General Surgery           | 264 (18.1%)        |
| 3     | Otorhinolaryngology       | 138 (9.5%)         |
| 4     | Orthopedic Surgery        | 114 (7.8%)         |
| 5     | Obstetrics and Gynecology | 106 (7.3%)         |
| 6     | Urology                   | 96 (6.6%)          |
| 7     | Pediatrics                | 88 (6.0%)          |
| 8     | Neurosurgery              | 78 (5.4%)          |
| 9     | Plastic Surgery           | 62 (4.2%)          |
| 10    | Thoracic Surgery          | 40 (2.7%)          |
| 11    | Neurology                 | 36 (2.5%)          |
| 12    | Emergency Medicine        | 16 (1.1%)          |
| 13    | Dermatology               | 10 (0.7%)          |
| 13    | Tuberculosis Medicine     | 10 (0.7%)          |
| 13    | Other departments         | 10 (0.7%)          |
| Total |                           | 1,45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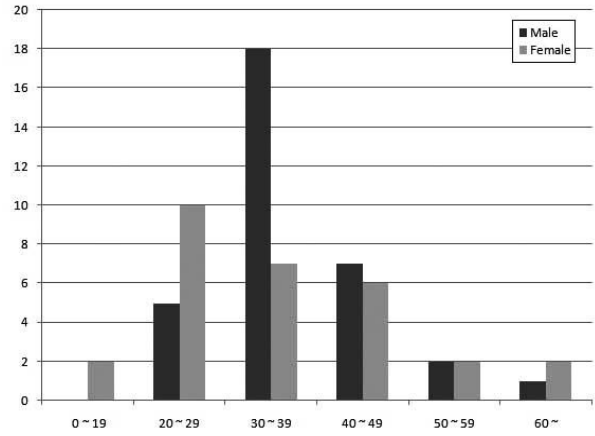
Table II.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 Patients by Nationality

| Rank  | Nationality     | No. of patient (%) |
|-------|-----------------|--------------------|
| 1     | China           | 452 (31.1%)        |
| 2     | Mongolia        | 388 (26.7%)        |
| 3     | Philippines     | 182 (12.5%)        |
| 4     | Vietnam         | 138 (9.5%)         |
| 5     | Nepal           | 118 (8.1%)         |
| 6     | Thailand        | 68 (4.7%)          |
| 7     | Bangladesh      | 50 (3.4%)          |
| 8     | Other countries | 62 (4.0%)          |
| Total |                 | 1,45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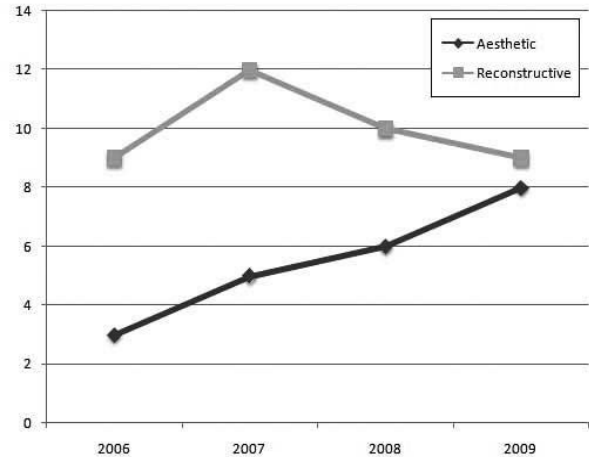
많았다. 이들은 과거 자기 나라에서 수상한 화상 또는 외상 후 반흔교정을 위하여 (8.1%), 미용적 목적을 위한 상안검 성형 (6.4%)이나 용비술 (4.8%)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었다. 과거 자기 나라에서 원인 미상의 물질 주입으로 인한 육아종 (3.2%)의 제거를 원하거나 미용수술의 후유증 또는 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남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형 탈모의 교정을 위한 모발이식술을 원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3.2%)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의 경우 구개·구순열 수술을 자기 나라에서 시행하고 이차 구순비 변형은 한국에서 수술받고 싶어 하는 환자 (3.2%), 선천기형인 다지증 (1.6%), 설소대 단축증 (1.6%) 등을 어릴 때 시행받지 못하거나 자국의 의료수준을 신뢰하지 못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 이외에 피부종양 제거술 (4.8%), 간단한 레이저 시술 (3.2%), 결핵성 림프선염의 절제술 (1.6%)을 본원 성형외과에서 시행하였다 (Table III). 외국인 근로자 환자들의 성형외과 진료내역을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분류하여 보면 재건성형이 40건 (64.5%), 미용성형이 22건 (35.5%)로 재건성형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06년부터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해가 갈수록 미용성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Table III.** Rank Order of Foreign Worker Patients according to Clinical Contents in Plastic Surgery

| Rank  | Diagnosis or operation                           | No. of patient (%) |
|-------|--|--------------------|
| 1     | Reconstruction of hand injury                    | 16 (25.8%)         |
| 2     | Reconstruction of facial injury                  | 13 (20.9%)         |
| 3     | Reconstruction of extremity Injury               | 6 (9.7%)           |
| 4     | Scar revision                                    | 5 (8.1%)           |
| 5     | Upper blepharoplasty (including revision)        | 4 (6.4%)           |
| 6     | Augmentation rhinoplasty                         | 3 (4.8%)           |
| 6     | Excision of skin tumor                           | 3 (4.8%)           |
| 8     | Hair follicular graft                            | 2 (3.2%)           |
| 8     | Excision of foreign material granuloma           | 2 (3.2%)           |
| 8     | Correction of secondary cleft lip-nose deformity | 2 (3.2%)           |
| 8     | Laser therapy                                    | 2 (3.2%)           |
| 12    | Correction of syndactyly                         | 1 (1.6%)           |
| 12    | Excision of cervical tuberculosis                | 1 (1.6%)           |
| 12    | Release of tongue tie                            | 1 (1.6%)           |
| Total |  | 62 (100.0%)        |



**Fig. 2.**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 patients in plastic surgery by gender and age.



**Fig. 3.** Comparison by year between reconstructive surgery and aesthetic surgery.

#### IV. 고 찰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 역사가 어느덧 20년이 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sup>5</sup> 이로 인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본원으로 내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능의 장애가 없고 미용목적의 시술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 환자들은 우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신이 의료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여 찾아오고 있으며 요즘은 각 병원 고객지원팀에게 홍보가 되어있어 외국인 근로자 환자가 타병원에서 본원으로 의뢰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우선 본원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고객지원팀의 심사를 받게 되며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할 경우 진료를 포기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들은 비급여로 진료를 받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의료 주체가 되는 본원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의 경우 타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하여 비급여로 진료를 받더라도 앞서 언급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적인 동질성으로 인해 서로 비슷한 거주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본원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 42.1%, 필리핀 10.0%, 베트남 10.0%, 태국 8.8%, 몽골 4.6%, 인도네시아 4.5%라고 보고된 바가 있다.<sup>6</sup> 이는 전체 수도권에 대한 분포이며 각 지역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국적 분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원에서 진료 받은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20~40대의 젊은 나이이며, 근로 작업장이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영역의 수부 및 안면부 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지의 연부조직 결손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과별 환자비율도 국내 환자와 외국인 근로자 환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국내 환자들의 성형외과 진료비율이 2.7%인데 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성형외과 진료비율이 4.2%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 병원 중에 성형외과를 진료과로 두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의료수준을 신뢰하여 자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용성형수술 및 성형외과적 시술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과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저임금 등의 이유로 한국의 새로운 하층계급으로 분류되었다.<sup>7</sup> 하지만 국내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관심, 복지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여건도 향상되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시행하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여차피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원 및 기타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자국의 의료수준 보다 한국의 의료수준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환자의 미용성형수술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1일 부터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내용이 시행되어 해외환자 유치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sup>8</sup> 또한 국내 많은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JCI 인증, 의료서비스의 세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국경제 신성장동력 17개 분야 중 하나로 국제의료서비스를 꼽고 있다.<sup>9</sup> 하지만 국내 병원이 외국인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 및 홍보가 필요하며 그런 연습 및 홍보의 대상자는 바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가는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등이며 공교롭게도 이중 중국, 몽골, 러시아인들은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형외과 의사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 REFERENCES

1. Kim JS: Survey of services provid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foreign workers. *J Kor Public Health Res* 30: 24, 2004
2. Joo SM: The characteristics and medical utilization of migrant workers. *Kor J Occup Health Nurs* 7: 164, 1998
3. Lee SH, Kim SJ, Lee YJ, Kim SY: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migrant workers. *J Kor Acad Comm Health Nurs* 20: 67, 2009
4.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 p3, 2008
5. Park HK: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실태로 본다. *의료정책포럼* 2: 103, 2004
6. Ryu JH: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 80, 2009
7. Ko HM: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28: 18, 2006
8. Moon JY: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 환자 유치 준비. *대한병원협회지* 38: 73, 2009
9. Park KR: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 *대한병원협회지* 38: 60, 2009
10. Jung KT: 해외 환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전략. *대한병원협회지* 38: 14, 2009